우암학원 창학 75주년
WCC 세계적인 전문대학 선정!!
전남과학대학교
CHUNNAM TECHNO UNIVERSITY

光州日報
SINCE 1952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협
대표번호 1644-7990
본점·여신사업부·문흥지점·양산지점·운암지점·매곡지점·첨단지점·동림지점·동광주지점·각화지점

1952년 4월 20일 창간 제22500호 1판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음력 4월 26일 2025년 5월 23일 금요일

검은연기 광주 하늘 덮을때 독성물질 피해 우려 덮었다

지난 17일 오전 광주시 광산구 소촌동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 불이 나 검은 연기가 도심 하늘을 뒤덮고 있다. /나명주기자mjna@kwangju.co.kr

광주시·영산강유역 환경청 금호타이어 화재 오염물질 배출 기준 멋대로 적용해 발표 시민에 '안전하다' 잘못된 신호 환경운동연합, 실태 조사 나서

광주시와 영산강유역환경청이 금호타이어 화재로 인한 대기오염 물질 배출과 관련, 전혀 근거없는 기준을 적용해 발표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기사 6면〉

광주시 등 국가기관이 관련 고시에서 제한하고 있는 점을 알고도, 기준을 제 멋대로 적용해 시민들이 '안전하다'는 잘못된 신호로 해석할 수 있는 왜곡된 정보를 흘렸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2일 광주시와 영산강유역환경청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1일 보건환경연구원, 영산강환경청 등과 공동으로 금호타이어 화재 발생 이후 대기오염 모니터링 결과를 공식 발표했다.

광주시는 "광주 전역에 설치된 대기측정망을 통한 대기오염도 측정 결과는 화재 당일부터 21일까지 5일 간 모두 대기환경기준 이내로 나타났고 2023년 연평균과 비교해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을 보였다"고 밝혔다.

특히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지난 17일 오전 10시부터 20일 자정까지 이동측정차량을 이용해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59종을 측정한 결과, '미미한 수준'으로 조사됐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광주시와 영산경환경청이 제시한 기준이 된 TWA(Time Weighted Average·시간가중평균 노출기준)는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이라는 고시를 통해 대기오염 평가 지표로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한 기준이다.

작업 환경상 1일 8시간, 주 5일 일하는 성인 근로자를 기준으로 한 지표를 표시할 때 제시하는 기준으로 고용노동부는 관련 고시 3조에 '대기오염 평가 또는 관리상 지표로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가 고시를 통해 대기오염을 평가하거나 관리하는 지표로 쓰지 말라고 명시했음에도, 광주시와 영산강환경청이 이 기준을 근거로 '미미한 수준'이라고 발표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마저도 일반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유해인자에 대한 노출 기준이라는 점에서 생고무·타이어 등 유독화학물질이 대거 불에 탄 대형 화재에 적용할 기준은 아니라는 게 일반적 시각이다.

영산강유역환경청도 이같은 제한 규정이 있는 점을 알고도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적용할 기준이 없어 참고할 만한 비슷한 기준이라고 판단해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해당 TWA 기준을 적용할 경우 고령자·영유아·기저질환자 등이 포함된 지역 실태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임의로 잘못된 기준을 적용해 시민들에게 '안전하다'는 메시지를 섣불리 던져줬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철갑 조선대병원 직업환경의학과장은 "완전한 눈속임"이라며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하는데 일반적인 주거환경에서 쓸 수 없는 작업환경에서 쓰는 지표를 가지고 '안전하다'고 하면 되겠냐"고 꼬집었다. 그는 "해당 지표를 그렇게 발표해서는 안 된다"면서 "노약자나 유아, 기저질환자 등을 배제한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송창영(광주대 건축학부 교수) 한국재난안전기술원 이사장도 "보다 안전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세계보건기구의 대기질가이드라인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VOCs에 대한 대기환경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고용부의 작업환경 기준을 참고할 수밖에 없었다"며 "정확한 자료 분석을 위해 오는 27일까지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서 한번 더 VOCs 20여종에 대해 측정할 방침"이라고 해명했다.

영산강유역환경청도 "모든 측정 기준에 대한 검토를 거쳐서 해당 기준을 선택한 것"이라며 "다른 대기환경 측정 기준 중에서 가장 보수적인 기준이라고 판단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광주환경운동연합은 민간위원회를 구성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현재 공장 철거과정에서 2차로 발생하는 대기 오염을 막기 위한 대책을 촉구할 계획이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새로운 대한민국에 한 표"

최장우 김지연 하유성 김현서 정해운

대선 D-11

광주 '생애 첫 투표' 유권자 5인 지역 소외 해결·복지 공약 중요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당당하게 한 표를 행사 하겠습니다.", "소외된 사람이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 후보를 택할 것입니다."

광주일보가 22일 대통령 선거에서 첫 투표권을 행사하는 광주·전남 유권자 5명을 인터뷰한 결과 이들은 한결 같이 '지금과 다른 대한민국'을 갈망했다.

12·3 비상계엄을 겪은 이들은 분열된 대한민국을 통합하고 지방소외와 소외된 이웃 등 우리사회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지도자를 원했다. 책임감을 가지고 유권자의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다짐도 했다.

〈관련기사 2·3·4면〉

청소년 유권자의 고민은 깊었다. 탄핵 이후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라는 점에서 더 나은 대한민국을 이끌 대표를 뽑기가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최장우(서석고 3년)군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진보를 이끌 후보를 뽑겠다"고 말했다.

최군은 "6·3 대선은 헌정 역사상 두 번째로 대통령이 파면을 당한 이후, 극심한 정치적 혼란과 대립 속에서 이뤄지는 선거여서 의미가 더 큰 것 같다"면서 "생애 첫 투표지만 미래 대한민국은 우리가 살아가야할 미래이기 때문에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기성 세대보다 더 신중하게 선택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시민의 의무를 행사하고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해 90% 이상 투표율을 올리는 데 일조 할 생각"이라면서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알고 그 가치를 지킬 수 있는 후보자에게 투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지연(광주여고 3년) 양도 "만 18세가 돼 처음으로 대통령 선거에 참여하게 되니, 선거가 단순한 한 표 이상의 의미로 다가온다"면서 "투표권 행사로 사회에 직접 참여한다는 사실이 낯설면서도 뿌듯하며 기대된다"고 웃었다.

김양은 "선거를 통해 구체적인 선택으로 이어지고, 선택이 어떤 결과를 만들지 지켜보게 된다는 점에서 책임감 또한 무겁게 느껴진다"면서 "많이 부족하지만,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 중 한 명이라는 자각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끌 후보를 선택 하겠다"고 다짐했다.

하유성(광덕고 3년) 군의 투표권의 기준은 '소외된 사람이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 후보'다.

하군은 "지금까지 부모님이 투표장에 가셨던 모습만 봐서 선거가 크게 와닿지 않았지만 올해부터는 다르다"면서 "투표권이 생기고 나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투표를 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 후보간의 토론 영상을 보거나 정치공부를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하군은 "후보자들의 공약과 정책 위주로 살펴보고 현실성 있는 공약 중 소외된 사람을 챙길 수 있는 후보에게 투표 할 것"이라면서 "책임감을 가지고 진지하게 고민해 투표에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내기 대학생 첫 유권자들은 '지방소멸'에 대한 공약에 관심이 많았다.

김현서(전남대 문헌정보학과 1년)씨는 "유권자로서 첫 선거가 대통령 선거여서 감회가 새롭다"면서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된 후 실시되는 선거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두고 한 표를 행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씨는 "특정 후보의 '지방거점국립대를 세계 수준 연구중심대학으로 육성한다'는 문구가 가장 인상 깊었다"면서 "지역에서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기 때문에 공감이 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대선에서 지역, 세대, 젠더 갈등이 발생하는것을 차단하고 대한민국을 한마음으로 통합하는 사회를 만들 수 있는 대통령이 당선됐으면 한다"고 소망했다.

정해운(동신대 물리치료학과 1년)씨는 '제일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을 더욱 이롭게 만들 수 있는 후보자를 뽑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씨는 "청년이 국가와 정치를 믿고 마음놓고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나라를 잘 이끌어갈 후보에게 표를 던지겠다"면서 "침체된 지역을 균형 있게 발전시킬 후보, 그리고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 아닌 화합을 이끌어내는 대통령이 당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별취재단=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